

타이틀	03. 이루리, 영어 매뉴얼을 보다
배 경	C기업 한국생산라인 기계관리부
등장인물	이루리: 20대 남 이주임: 30대 남. 이루리와 같은 팀 사수 James: 40대 외국인Manager(부장급)

시놉시스

이루리는 외국인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메일로 받는다. 출장에서 돌아가면 새로 구입한 외국인 기계를 테스트할건데 사용 전에 미리 설치를 해 놓으라는 내용이었다. (세단기, 미싱, 그라인더 등 신입이 설치하기 쉬운 작고 간단한 기계)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 포장박스를 보니 설치 전 주의사항이 영어로 나와있다. 이루리는 영어 경고문구에 따라 조심스럽게 포장을 해체한다.

이루리는 영어 매뉴얼을 보고 기계를 조심스럽게 설치한다. 그리고 간단해 보이지만 조작스위치 작동법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루리는 상사를 위해 영어로 간단하게 조작법을 써놓아 어느 스위치를 몇 번 누르면 되는지 안내해 놓는다. 테스트 전에 이상이 생기면 큰일난다는 생각에 상사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의사항이 적힌 경고문을 영어로 붙여놓는다.

대 본

#1 타이틀 : 03. 이루리, 영어 매뉴얼을 보다.

#2 공장 사무실, 아침

공장에 붙어 있는 사무실. 이루리가 꾸벅꾸벅 인사하며 출근한다.

루리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키는데 커피 뽑아 오던 이주임이 들르며 말을 건다.

이 제임스 매니저가 메일 보내셨던데? 봤어요?

루리 아뇨, 아직. (가우뚱) 어제 일본 도착하셨을텐데...?

이 언뜻 보기엔 기술전시회 얘기인 것 같던데요?

루리가 이메일을 클릭하면 어깨 너머로 같이 보는 이주임 메일 화면 보이면서 그 위로 제임스 음성이 들린다.

(James) Hi. I bought a beam projector for us in Japan. I think it will be useful in explaining our ideas at the exhibition booth. I sent it via airmail and should arrive soon. I attached the invoice here in this e-mail. Ruri, set up the beam projector in the conference room. Then Chief Lee will use it to practice the presentation.

이 오, 전시회 부스에 빔프로젝터? 아이디어 괜찮네요.

루리 네. 작고 성능 좋은 빔프로젝터면 휴대도 편하고 자리 차지도 별로 안하니깐요.

이 그걸로 영상을 틀어놓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면 홍보 효과 업이죠! 어디 보자, 루리씨가 그걸 회의실에 설치하고 내가... (자기가 그걸 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급 우울) 아, 나보고 연습하라는 말씀...? 하, 일이 또 늘었네.

루리 (메일 보낸 날짜 보며) 메일 보낸 날짜가 4월 3일, 어제예요. 어제 일본에서 사서 보내셨으면 도착하는데 4~5일은 걸리지 않을까요?

이 (달력 본다.) 그럼 주말 빼고 10일이나 11일쯤 배송 도착?

화면에 달력 나오고 이루리와 이주임 말에 맞추어 날짜에 표시가 된다.

루리 (달력에 제임스 매니저 귀국, 전시회 체크되어 있다.) 제임스 매니저가 14일에 돌아오고 전시회는 20일부터니까 연습 할 시간은 거의 보름 정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17일부터는 부스 설치 때문에 왔다갔다 정신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매니저 오기 전까지 연습 해놓는 게 맞긴 한데... 배송이 늦어지면 어쩔 수 없죠, 뭐.
루리 아, 여기 국제우편 송장을 첨부하셨으니까 사이트에서 배송조회 한번 해볼게요.

루리가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국제우편 송장이 나온다.

루리 맨 위에 이 글씨가 송장번호 맞죠? 음... (이루리와 이주임이 허리를 굽혀 배송조회 결과를 들여다 보면) 3일 후 도착 이네요. (눈치보며) 4월 6일이요.
이 진짜요? 헐... (확인 후 한숨 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며 투덜투덜) 요새는 뭐든 너무 빨라,

#3 회의실

며칠 후, 회의실 탁자 위에 택배가 도착해 있다. 이루리와 이주임이 박스를 열어 빔 프로젝터 기계를 꺼내고 있다. 기계의 송풍구에 붙어 있는 경고 문구 "Please remove the protection label before using, Otherwise, The airflow vent can be blocked and cause malfunction of the product from overheating."

경고문구에서 화면 멈추며, 루리의 생각

루리 *사용 전에 보호라벨을 제거하라는 거구나.*

루리가 필름을 쪽 떼면 불안하게 보는 이주임

이 (의심스럽게) 그거 떼어도 되는 거예요?
루리 네. 여기가 통풍구라 사용 전에 제거하라고 써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풍구가 막혀서 열이 발생한다고요.
이 아~ (약간 안심하며) 혼자 할 수 있겠어요?
루리 그럼요. 설치 간편한 휴대용인데요, 뭐. (박스에서 매뉴얼 꺼내 펼치며) 설치 다 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시잖아요.

매뉴얼 보는 자신만만한 얼굴에서 화면 멈추고, 속생각

루리 *(아차 싶어서) 아! 매뉴얼이 다 영어구나!*

이 (미안한 마음에) 정말 괜찮겠어요? (하면서 이미 나가려고 일어나는 중)
루리 (차마 다시 못 잡고) 모르는 게 나오면 질문하겠습니다.
이 알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세요.
루리 네.

이주임 가면 영어 매뉴얼을 보고 한숨 쉬는 이루리

루리 (매뉴얼 보며) 뭐가 이렇게 많아... 먼저 Operation Instruction? 이게 조작방법인가보다.
루리 '1. Connect power to the back of the unit' 뒤편에 있는 전원을 연결해라... (코드를 꽂으면 버튼이 반짝이기 시작한다.) '2. Press the blinking Ready button' 깜박이는 준비 버튼을 누르고... (깜박이는 버튼을 누르면 렌즈에서 빛이 나온다.) '3. When the screen comes up, select the suitable menu' 스크린이 나타나면 필요한 메뉴를 선택해라.

루리가 조작하면 마침내 스크린 화면이 나타난다.

루리 (좋아하며) 됐다! (위 아래 길이가 다른 화면) 찌그러졌는데... 줌 조절로 초점을 맞추는 건가? (줌 버튼을 돌려 화면에 글씨가 또렷하게 나온다.) 위 아래가 안 맞네? 이걸 화살표로 조절하는 건가보다. (리모컨의 화살표로 위 아래를 맞춘다.)

잠시 후, 이주임이 똑똑 회의실 문을 노트하고 들어온다.

이 이루리씨. 아직 안 끝났어요?

이미 회의실에서는 프로젝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 (기특하다는 듯) 오, 다 됐네요.

루리 (속스럽게 웃으며)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매뉴얼 훑어 보며) 아유, 이걸 다 봐야 하는 건 아니겠죠?

루리 네, 사용법만 아시면 되니까요. 지금 알려드릴까요?

이 간단하게 사용법이랑 주의사항 좀 정리해서 보기 쉽게 붙여주실 수 있어요? 제임스 매니저도 사용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 말고 나중에 다른 팀에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사내용으로 자세히 사용법 좀 붙여주세요. 영어랑 한글 다 필요하겠네요.

루리 냐.

#4 이루리 자리

매뉴얼 보면서 컴퓨터로 사용법 만들고 있는 이루리, 옆에는 기계가 놓여 있다. 이루리 음성과 함께 화면에 작성중인 정리한 워드 파일 나온다.

루리 (작업하는 모습 위로 음성과 텍스트화면) 1. 본체 뒤에 있는 전원 연결, Connect power to the back of the unit, 2. 깜빡이는 준비버튼 누름, Press the blinking Ready button, 3. 화면이 나오면 필요한 메뉴 선택, Select the suitable menu

루리 (모니터 보며 가우뚱) 그런데 이것만 보고 어느 버튼인지 알 수 있을까? 버튼에 번호를 붙여는 편이 낫겠다.

루리가 번호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해당 버튼에 순서대로 붙인다. 뒤로 루리가 정리한 텍스트가 보여진다. 번호를 붙이고 직접 컴퓨터로 내용을 작성하는 모습

루리 (기기의 전원케이블 부분에 0번 스티커 붙이며) 0번, 본체 뒤에 있는 전원을 연결하세요. (텍스트로 화면에 내용을 넣고 다시 깜빡이는 버튼에 1번 스티커 붙이며) 1번 준비버튼, 깜빡이는 준비버튼을 누르세요. (텍스트 쳐서 넣고 2번 스티커 붙이기) 2번 파워버튼, 파워버튼을 누르면 빛이 렌즈에서 나옵니다. (텍스트 작업하고 3번 스티커) 3번 조절 핸들, 그림이 선명해질 때까지 초점을 조절하세요. (텍스트 작업 하고 4번 스티커) 4번, 화면에서 원하는 메뉴를 고르세요. (텍스트 작업)

루리 (문제해결에 부딪해서) 이러면 아시겠지? (하고 기계를 뒤집어 보는데 나오는 노란 경고문) 아니 무슨 경고문을 바닥에 붙여 놓고... 주의사항에 넣는 게 낫겠다.

다시 컴퓨터 작업하는 이루리. 완성된 기계. 잘 보이는 곳에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붙어 있고 버튼에는 번호가 붙어있다. 부듯하게 보는 이루리

루리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한 눈에 사용할 수 있겠는데? 제임스 부장님이 빨리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